

##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문선\*    김지현 † †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경쟁모형보다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도구성과 힘·성취에 대한 욕구는 모두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보일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매개로 간접효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다차원적 성역할 즉 도구성과 힘·성취에 대한 욕구 모두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통해서도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는 결과이다. 즉, 남자청소년은 도구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또한 이들은 도구성을 내면화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힘·성취에 대한 욕구에 집착할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초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생애 초기부터 형성된 견고한 도구성과 성역할갈등 자체를 변화시키기 쉽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과 탐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남성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을 통합하여 남자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남자청소년, 도구성, 성역할갈등, 힘·성취에 대한 욕구,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 교신저자 : 하문선, (121-8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3(상암동), 서울상암초등학교, sunny7601@hanmail.net

† † 김지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중요성·성공·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Coopersmith, 1967).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재주, 자기 확신, 인내, 사회적 기술 등을 가지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 불안,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며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윤정혜, 1992 재인용). 따라서 발달단계상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미래에 대한 진로를 준비하고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기의 긴 시기 중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종종 혼돈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Erikson, 1963). 사춘기를 중심으로 한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취약한 시기로 보고되어(Seidman, Allen, Aber, Mitchell, & Feinman, 1994) 이 시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에 들어선 초기 청소년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성역할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태도, 이상을 정립할 수 있다(이종화, 2008 재인용). 성역할정체성은 성역할사회화를 통해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구체화되며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부터 성역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시기인 점(Signorella & Cooper, 1993) 등을 고려하면,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어서 성역할정체성의 확립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역할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세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발달시킨 남성은 남성성정체성을, 여성은 여성성정체성을 가질 때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일치모형(Kagan, 1964)이다. 다음으로, 성역할정체성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 안녕을 위해 바람직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양성성 모형(Bem, 1974; Spence, Helmreich, Stapp, 1975)이 다수 연구자의 관심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는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남성성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남성성 모형(Whitley, 1983)이 있다. 특히 최근 경험적 연구들은 남성성의 긍정적인 측면 즉 자기효능감 또는 주장성 등을 포함하는 도구성(Instrumentality)이 심리적인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많은 개인은 우울감이나 열등감이 적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Waelde, Silvern, & Hodges, 1994; Whitley & Gridley, 1993) 문제해결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Marcotte, Alain, & Gosselin, 1999). 국내에서도 대학생

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남성성의 도구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편, 성역할과 관련된 구인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도 있으며, 이 두 측면은 서로 구별되는 구인임이 알려졌다. 성역할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1980년대 일부 남성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변인뿐 아니라 남성의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정적인 변인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부정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역할갈등과 같은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보고하였다(Spence, 1993; Pleck, 1995). O'Neil(1981)은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성역할갈등으로 개념화하였고, 특히 남성성역할갈등이 성공·권력·경쟁(success, power, competition; SPC), 감정 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RE), 남성 간 애정 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RABBM),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 CBWF)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경쟁과 힘을 통해 추구되는 성공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나타내며, 감정 억제 요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남성 간 애정 행동 억제 요인은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남성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어려워하는 것을 설명하며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 요인은 일, 학교, 가족 관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건강 문제, 과로, 스트레스, 여가와 휴식의 부족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관련 연구들은 도구성과는 달리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높다고 보고하였다(Good & Mintz, 1990; Sharpe & Heppn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 즉 성역할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Blazina, Pisecco, & O'Neil, 2005). Watts와 Borders(2005)는 성역할갈등이 청소년기에 발달하며,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긴장과 갈등에 더하여 성역할갈등이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 등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적 위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역할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역할이 자아존중감 등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학업 관련 문제는 크게 관여된다. 특히 성역할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학업성취의 문제로 보고되었다(박완성, 2002; 오윤자, 2003). 학업문제는 학교적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최영신, 김영희, 2006) 학업성취수준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이

중은, 박선남, 박호란, 2001).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발표한 ‘한국청소년지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72.6%가 학업을 손꼽았는데(최인재, 이기봉, 이한나, 2010),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업과 관련된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문제가 학교 부적응,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강승호, 정은주, 1999; 박재연, 정익중, 2010). 특히, 초기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로(고재홍, 김미정, 2009) 이전과 달리 학업에 대한 내적, 외적 환경의 기대로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라고 보고하여(Furman & Buhrmester, 1992) 초기청소년의 학업성취문제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다.

관련연구들은 성역할과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역할사회화 과정에 의하여 획득된 유능성, 독립성, 주장성, 지도력 등과 같은 긍정적 남성성 즉 도구적 특성은 건강한 남성다움과 연결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남성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상을 받으며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Horner, 1972). 성역할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의 도구성은 좌절적인 상황을 쉽게 극복하며 성취지향적인 성격특성을 발달시키게 하고, 어렵고 도전적이라고 생각되는 과제를 더 선택하게 하여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남성의 도구성은 학업 문제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을 더 도전적이고 경쟁적이게 만들며 높은 성취를 추구하도록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학업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을 유능하지 못한 존재로 느끼게 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한다(Marcia, 1993; Meeus, 1996). 이는 남자청소년의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 즉 도구성이 학업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끼침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도구성이 높은 남자청소년이 성공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Macreary, Newcomb, & Sadava, 1999; Pleck, 1995). 또한 여성성이 학업성적과 상관이 없는 것과는 달리 남성성은 학업성적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공운정, 2011), 남성성이나 양성성을 가진 경우 학업성취도도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영희, 1988; 오윤자, 2003; Bem, 1974; Benz, 1981; Kelly & Worell, 197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성의 도구성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며 자아존중감을 높일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은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심리적으로 역기능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O’Neil, 2008; Pleck, 1995). 연구자들은 성역할갈등이 개인을 구속·억압하며 평가절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낮은 자존감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여(O’Neil, 2008) 성역할갈등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남성들이 힘과 성취를 강하게 추구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스트레스와 심

리적 고통받게 되며(최명식, 1995) 심리적 행복감이 낮아진다고(Sharpe & Heppner, 1991) 보고하여, 성역할갈등의 구성 요인 중 특히 성공·권력·경쟁 요인이 그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크게 관련됨을 나타내었다. 성역할갈등 관련연구에서는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남성이 훌륭한 성취를 이루어서 존경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절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모험과 위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Brannon & Juni, 1984) 등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편함이 성역할갈등의 성공·권력·경쟁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경쟁과 힘을 통해 추구되는 성공과 관련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성공을 자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남성은 경쟁과 권력을 통해 성공을 추구하는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O'Neil, 2008), 학교나 조직 등에서 최고의 위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남성들만 성공을 이룰 수 있어(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이에 집착할 경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에 대한 연구(하문선, 김지현, 2012)에서는 남성성역할갈등이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기표현억제의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들 중 힘·성취에 대한 욕구는 성인 척도의 성공·권력·경쟁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외적·신체적 강함과 미래의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부정적 측면의 성역할 중 특히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초기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 중에서 특히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학업적 성취 및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성취를 강조한 남성성역할갈등의 내면화는 남자청소년으로 하여금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적 성취를 목표로 하도록 한다.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자청소년은 학업에서도 이 같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 실패 경험을 누적하게 되고 자신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자기존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들 중 일부는 다차원적인 성역할 즉, 성역할의 긍정적 부분 및 부정적 부분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김지현, 최희철, 2007; Choi, Kim, Hwang, & Heppner, 2010), 초기 남자청소년의 다차원적인 성역할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성역할갈등이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탐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기제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접근은 상향효과의 관점이다(Trautwein, Ludtke, Koller, & Baumert, 2006). 학령기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학업적 성공의 축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형성하도록 한다(김희수, 2003). Harter(1999)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개인이 성취한 경험과 중요한 타인들에게서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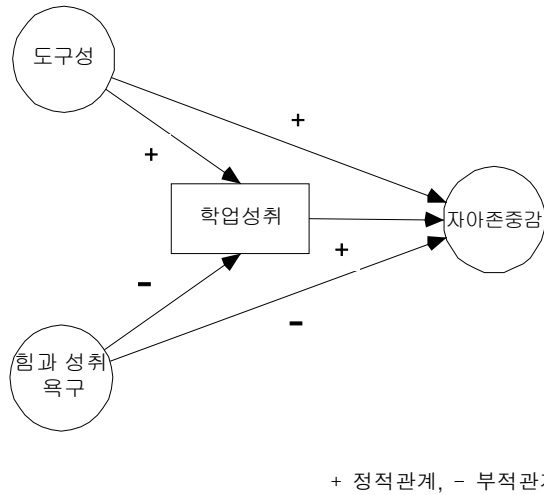
피드백에 의해 발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성공을 뜻하는 높은 학업성취는 부모와 또래에게 수용을 끌어내어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완화하고 성공적 피드백을 끌어내며, 청소년의 긍정적 관점을 형성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Schwartz, Gorman, Duong, & Nakamoto, 2008). 따라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자신을 가치있고 바람직하며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데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부족하고 타인이 자신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Ames, 1992; Schunk, 1994). 관련 연구들은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이경화, 정혜영, 2006;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종단연구에서도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희철, 김옥진, 김병석, 김지현, 2010; Ross & Broh, 2000). 특히, 연구자들은 학년이 낮은 시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년이 높아지면 더 이상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김종한, 2001; 이경은, 이주리, 2009; 이경화, 정혜영, 2006).

이와 같이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중요한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차원적인 남성성 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의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초기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한 탐색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발달단계상 초기청소년의 시기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일반적으로 9세에서 14세까지를 초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Narramore, 1995). 관련 연구들은 초기 청소년기를 중학교 1~2학년, 초6~중2, 초4~중2(박성미, 2013; 박재숙, 2011; 조운주, 2010) 등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남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교과목별 자기보고식 평가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인 시험점수를 사용하여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실제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 상관인  $r = .84$ 로 보고하였으며(문은식, 2012), 일부 연구는 자기평가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Maybe & West, 1982; Westbrook, Buck, Wynne, & Sanford,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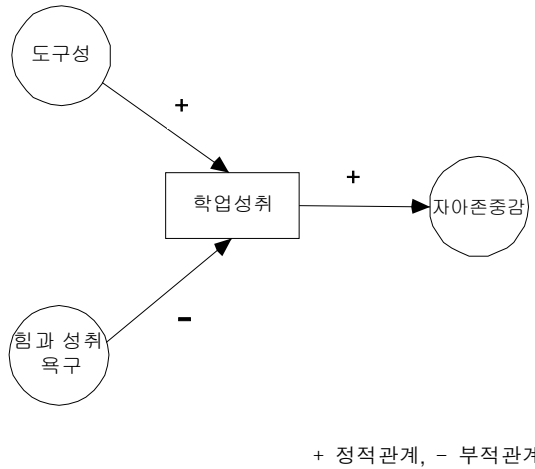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인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초기 남자청소년의 지각된 학업성취,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구성과 힘·성취에 대한 욕구를 독립변인으로,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그림 1)을 설정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였다. 연구모형에는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학업성취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경쟁모형(그림 2)은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학업성취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124명, 중학교 1, 2학년 118명(1학년 53명, 2학년 65명) 총 242명의 초기 남자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기는 새로운 학교환경의 변화로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킨다고 보고되어(Fenzel, 2000),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학교급별 표집수를 유사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 측정 도구

#### 도구성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orea Sex Role Inventory : 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m(1974)의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고안된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이 각각 20개씩 총 60문항,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정진경(199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이 각각 .91, .84,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들 중 도구성 척도 20문항(예 : 믿음직스럽다, 자신감이 있다, 씩씩하다 등)만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하문선, 김지현(2012)이 개발한 초기 남자청소년용 성역할갈등척도(K-MGRCS-Y,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young adolescent boy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힘·성취에 대한 욕구 5문항, 자기표현억제 5문항 총 2요인, 10문항, Likert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역재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하문선, 김지현(201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힘·성취에 대한 욕구, 자기표현억제가 각각 .77,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힘·성취에 대한 욕구 척도 5문항(예 : 힘이 세야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미래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만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는 .77이었다.



### 지각된 학업성취

학업성취도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각 과목별(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Likert 5점 척도(1, 매우 낮다 - 5, 매우 높다)로 구성된 교과목별 자기보고식 평가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학업성취 수준의 Cronbach  $\alpha$ 는 .72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의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한국판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SPSS 18.0, AMOS 7.0을 사용하였다. 특히,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을 가정하고 EM 방식을 사용하였다.

### 정상성 검증과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추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최대우도(ML) 추정방법으로, 이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가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변량 왜도값, 단변량 첨도값, 다변량 첨도값을 확인하였다. 정상성 분석 결과, 단변량 왜도값과 단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 미만 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다변량 정상성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분석시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는 개개 문항들을 묶어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모든 문항들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여 추정할 경우 다변량 정규 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Bandalos, 2002) 너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문항으로 구성된 변인들은 문항점수들을 합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구성하여 분석되었다.

### 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지수 즉  $\chi^2$  값,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또한 위계적 관계에 있는 경쟁 모형들 중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chi^2$  차이값( $\Delta \chi^2$ )과 자유도 차이값( $\Delta df$ )에 기초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 연구 결과

###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표 1), 남자청소년 힘·성취 욕구는 도구성과  $-.05(p > .01)$ 의 상관을 보여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힘·성취 욕구 요인이 도구성의 긍정적 측면과는 남성성역할의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힘·성취 욕구는 학업성취, 자아존중감과 각각  $-.11, .21(p < .01)$ 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도구성은 학업성취, 자아존중감과 각각  $.25, .44(p < .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과  $.38(p < .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관측변수들 간의 단순상관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힘·성취욕구	2. 도구성	3. 학업성취	4. 자아존중감
2	-.05	1		
3	-.11*	.25**	1	
4	-.21**	.44**	.38**	1
평균	17.83	89.98	3.31	35.79
표준편차	5.23	17.40	1.14	6.25

주. 1. 힘·성취욕구 2. 도구성 3. 학업성취 4. 자아존중감 \*\* $p < .01$ , \* $p < .05$

### 정상성 검증

연구 표집에 대한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변량 왜도값, 단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미만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다변량 첨도값(극단치 제거전 : 25.756, 극단치 제거후 : 23.819)은 3보다 훨씬 커서 Mardia(1974)의 정상화된 다변량 첨도값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서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 측정모형 검증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나타낸 측정모형 검증 결과,  $\chi^2(87, N=242) = 215.985(p < .001)$ ,  $TLI = .900$ ,  $CFI = .916$ ,  $RMSEA = .078$  [90% CI = (.065 - .092)]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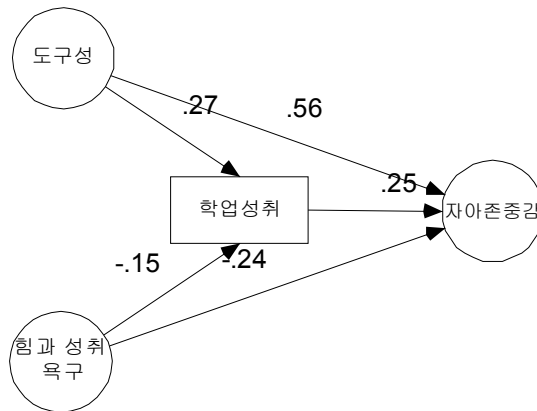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것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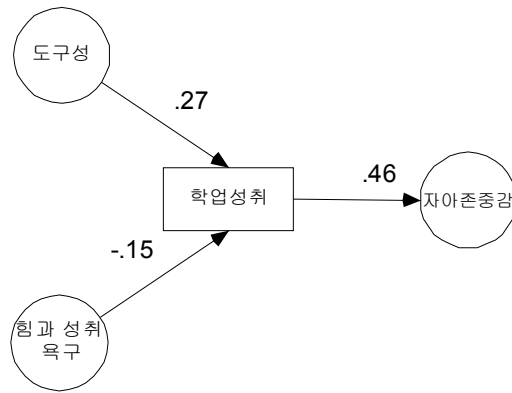
## 구조모형 검증

### 모형 평가 및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첫째, 연구모형인 구조모형 1을 검증한 결과,  $\chi^2(99, N = 242) = 216.918(p < .001)$ ,  $TLI = .912$ ,  $CFI = .927$ ,  $RMSEA = .070$  [90%  $CI = (.058 - .083)$ ] 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 2를 검증한 결과,  $\chi^2(101, N = 242) = 287.718(p < .001)$ ,  $TLI = .863$ ,  $CFI = .884$ ,  $RMSEA = .088$  [90%  $CI = (.076 - .100)$ ] 의 값을 보였다. 셋째, 구조모형 1과 2의  $\chi^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2, N = 242) = 70.800(p < .05)$ 로 유의하여, 구조모형 1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  $CFI$ ,  $RMSEA$  역시 구조모형 1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넷째,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의 추정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모형(그림 3)에서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은 학업성취에  $.275(p < .05)$ , 자아존중감에  $.559(p < .05)$ 의 경로계수를 보였다. 힘·성취에 대한 욕구는 학업성취에  $-.148(p < .05)$ , 자아존중감에  $-.242(p < .05)$ 의 경로계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255(p < .05)$ 의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구조모형 1(연구모형)



[그림 4] 구조모형 2(경쟁모형)

<표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비교

모형	$\chi^2$	df	모형비교	$\Delta \chi^2(df)$	TLI	CFI	RMSEA (90% CI)
구조모형1 (연구모형)	216.918	99			.912	.927	.070(.058 - .083)
구조모형2 (경쟁모형)	287.718	101	1 vs 2	70.800(-2)**	.863	.884	.088(.076 - .100)

주. \*\*  $p < .01$ , \*  $p < .05$

<표 3> Bootstrapping 추정에 의한 최종모형의 경로 추정치, 신뢰구간, 유의도

경로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B	$\beta$	S.E.	t
도구성 → 학업성취	.094	.275	.022	4.217***
힘·성취욕구 → 학업성취	-.157	-.148	.075	-2.080**
학업성취 → 자아존중감	.133	.255	.037	3.632***
도구성 → 자아존중감	.100	.559	.018	5.495***
힘·성취욕구 → 자아존중감	-.134	-.242	.042	-3.172***

주. N = 242.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 : 10,000개, B : 비표준화된 추정치,  
 $\beta$  : 표준화된 추정치임, S.E. : 표준오차

### 매개모형의 검증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를 위해 Shrout와 Bolger (2002) 등이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N = 242)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Bootstrapping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도구성, 힘·성취 욕구)이 종속변인(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학업성취)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구성에서 학업성취를 거쳐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힘·성취 욕구에서 학업성취를 거쳐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04 - .026, -.051 - -.004).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도구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힘·성취 욕구와 학업성취의 관계는 학업성취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효과의 종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i>B</i> ( <i>CI</i> )	$\beta$	<i>B</i> ( <i>CI</i> )	$\beta$	<i>B</i> ( <i>CI</i> )	$\beta$
도구성	-	학업성취	.094 (.058 - .135)	.275	.094 (.058 - .135)	.275	-	-
도구성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112 (.077 - .151)	.629	.100 (.067 - .135)	.559	.012 (.004 - .030)	.070
힘·성취욕구	-	학업성취	-.157 (-.291 - -.001)	-.148	-.157 (-.291 - -.001)	-.148	-	-
힘·성취욕구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155 (-.279 - -.078)	-.280	-.134 (-.256 - -.059)	-.242	-.021 (-.057 - -.003)	-.038
학업성취	-	자아존중감	.133 (.044 - .228)	.255	.133 (.044 - .228)	.255	-	-

주. *N* = 242.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 : 1000개, *B* : 비표준화된 추정치,  
 $\beta$  : 표준화된 추정치임, *S.E.* : 표준오차

## 논 의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급격한 변화와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취약한 시기로 알려졌다(Seidman et al., 1994). 또한 이 시기는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성역할이 구체화되며 특히 그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이 발달하는 시기로, 선행연구들(Macreary et al., 1999; Brannon & Juni,

1984)은 다차원적인 남성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의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또는 저하시킬 가능성을 보고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다차원적인 남성성역할과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ootstrapping 방식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 검증결과,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은 학업성취에  $.275(p < .05)$ , 자아존중감에  $.559(p < .05)$ 의 영향을 미치고, 힘·성취에 대한 욕구는 학업성취에  $-.148(p < .05)$ , 자아존중감에  $-.242(p < .0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255(p < .0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과 힘·성취에 대한 욕구 모두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통해서도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남자청소년은 도구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힘·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또한 이들은 도구성을 내면화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힘·성취에 대한 욕구에 집착할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성역할의 변화 즉 도구성의 향상 및 힘·성취에 대한 욕구 완화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도구성이 높은 남자청소년이 성공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되었다(Maccreary et al., 1999; Pleck, 1995)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남성들이 힘과 성취를 강하게 추구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며(최명식, 1995), 심리적 행복감이 낮아진다(Sharpe & Heppner, 1991)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낮을 때에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과정의 심화로 인지적 역량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더 이상 학업성취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학업성취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이경은, 이주리,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특히 생애초기부터 형성되어 사회화된 성역할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한 개인적 변인(예 :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사회적 지지 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영향에 의한 외적 변인(예 : 성역할사회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

인 성역할갈등(힘·성취에 대한 욕구)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생애초기부터 형성되어 내면화된 견고한 도구성과 성역할갈등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남성성역할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성역할이 학습되고 경험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특이하기 때문에(O'Neil, Good, & Holmes, 1995) 이를 초기 청소년의 연구에서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과 그들의 중요한 발달과업 즉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향상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련하여 전통적 연구에서 본 관점 즉,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Brown, Dutton, & Cook, 2001; Watkins & Astilla, 1980) 기존의 연구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그 원인이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문제인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환경의 압력으로 인한 좌절과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먼저 생의 초기부터 형성되어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성역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우선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업에서의 성공경험 등과 같은 청소년의 현실에 기초한 자아존중감 향상인 경우 청소년은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이유를 더 찾을 수 있다(Baumeister et al., 2003).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에 적절히 관여하고 조력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을 제안한다. 따라서 상담자와 교사는 청소년의 학업전략들을 확인한 후 부적절한 경우 다양한 학습전략의 방법들, 특히 최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탐구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학습 방법 등을 교육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업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지적 요인(예 : 지능, 기초학습능력 등), 정의적 요인(예 : 학습동기, 불안 등), 행동적 요인(예 : 시간관리, 학습습관 등)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들 중 어떤 원인이 학업에서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는지 개념화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업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학업성취가 또래에게 수용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Schwartz, Chang, & Farver, 2001)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미래와 직업을 결정하게 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건설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문제가 직접적으로 성역할의 도구성 또는 성역할갈등의 문제로 귀결

될 경우, 바람직한 도구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신념 등(예 : 남자는 힘이 세야 한다)을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구성이 낮고 성역할갈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상담관계 내에서 이상적인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찾아내고 좌절하지 않도록 지지해 준다면 자아존중감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만 귀인하지 않도록 하고 성역할로 인하여 유사한 부적응 문제를 반복 경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의 일부분이 사회환경의 영향 특히 성역할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영향임을 자각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성성역할갈등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인 특히 힘·성취에 대한 욕구 요인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초기 남자청소년으로 제한되었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관계의 방향이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이경은, 이주리, 2009),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낮더라도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Alves-Martins, Peixoto, Gouveia-Pereira, Amaral, & Pedro, 2002)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이용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성취 변인은 청소년의 객관적인 실제 성적의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즉 지각된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학업성적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정병삼, 2012; Westbrook, Buck, Wynne, & Sanford, 1994)은 학생들 자신이 지각한 학업성취 수준을 학업성취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학업성취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넷째,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역할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긍정적 변인(예 :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정적 변인(예 :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ener(2000)는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차원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환경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성역할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부정적 측면이 개선되고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 및 상담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들이 개인 성격 및 특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진 점을 고려



초기 남자청소년의 도구성, 힘·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 지각된 학업성취를 매개로

해 볼 때,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확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승호, 정은주 (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 고재홍, 김미정 (200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 방어기제들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4), 161-183.
- 공윤정 (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9(1), 127-141.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7, 153-182.
- 김종한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도구성과 성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2), 107-121.
-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 25-41.
- 김희수 (2003). 가정의 과정환경과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적 환경, 동기적 신념, 인지적, 행동적 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1(2), 59-73.
- 박성미 (2013). 초기 청소년 남녀 학생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심리적 독립성, 성역할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 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재연, 정익중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69-97.
- 오윤자 (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학회, 17(2), 315-330.

- 윤정혜 (1992).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이주리 (2009).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 통사적 상호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1), 65-73.
- 이경화, 정혜영 (2006). 아동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7(3), 171-184.
- 이종은, 박선남, 박호란 (2001). 일도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7(1), 74-84.
- 이종화 (2008).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여자청소년의 성역할정체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3), 450-458.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중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5(1), 82-92.
- 조윤주 (2010). 청소년초기 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초기 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잠재성장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17(3), 7-35.
- 최명식 (1995). 남성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신, 김영희 (2006). 가족의 정서적 환경,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이 초등학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0(2), 105-124.
- 최희철, 김옥진, 김병석, 김지현 (2010). 자기존중감과 학업성취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담학연구, 11(1), 283-301.
- 하문선, 김지현 (2012). 한국 초기 남자청소년 성역할갈등척도(K-MGRCS-Y)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3), 1065-1082.
- 최인재, 이기봉, 이한나 (20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ves-Martins, M., Peixoto, F. Gouveia-Pereira, M., Amaral, VI, & Pedro, I. (2002).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Educational Psychology*, 22(1), 51-26.
- Ames, C. (1992). Classrooms :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E.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 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Benz, C. R. (1981). Sex Role Expectations of Classroom Teachers, Grades 1-12. *Am Educ Res J*, 18(3), 289-302.
- Blazina, C., Pisecco, S., & O'Neil, J. M. (2005). An Adaptation of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Adolescents : Psychometric Issues and Correlate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1), 39-45.
- Brannon, R., & Juni, S. (1984). A scale for measuring attitudes about masculinit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4, 6.
- Brown, J. D., Dutton, K. A., & Cook, K. E. (2001). From the top down :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Cognition & Emotion*, 15(5), 615-63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Co.
- Choi, H., Kim, J., Hwang, M., & Heppner, M. J. (2010).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Instrumentality,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Mal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ex Roles*, 63(5-6), 361-372.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th Edition).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s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93-116.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 Evidence for compounded ris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17-21.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1998). *Career counseling :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Boston : Allyn and Bacon.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Prentice Hall.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NY : Guilford Press.
- Horner, M. S. (1972).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hievement-Related Conflicts in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157-175.
- Kagan, J. (1964). The Child's Sex Role Classification of School Objects. *Child Development*, 35(4), 1051-1056.
- Kelly, L. A., & Worell, J.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s and androgyny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6), 1101-1115.
- Macreary, D. R., Newcomb, M. D., & Sadava, S. W. (1999). The male role, alcohol use, and alcohol problems : A structural modeling examination in adult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109-124.
-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Ego Identity*, 1993, 3-21.
- Marcotte, D., Alain, M., & Gosselin, M. (1999).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 gender-typed characteristics or problem-solving skills deficits?. *Sex Roles*, 41(1-2), 31-48.
- Mardia, K. V. (1974). Applications of some measures of multivariate skewness and kurtosis in testing normality and robustness studies. *The Indian Journal of Statistics*, 36(2), 115-128.
- Maybe, P. A., & West, S. G. (1982). Validity of self-evaluation of ability :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3), 280-296.
- Meeus, W. (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5(5), 569-598.
- Narramore, B. (1995). *Help! I'm a parent : How to handle temper tantrums, sibling fights, questions about sex, and other parenting challenges*. Grand Rapids, MI : Zondervan Pub. House.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03-210.
- O'Neil, J. M. (2008). Summaris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 358-445.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Levant, R. & Pollack, W. (Eds.), *The New Psychology of Men*. (pp. 163-206). New York : Basic Book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 An update. In R. R. Levant & W. S. Pollack(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 BasicBook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C. E., & Broh, B. A. (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73(4), 270-284.
- Schwartz, E., Chang, L., & Farver, J. M. (2001).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Hong Kong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27-37.
- Schwartz, D., Gorman, A. H., Duong, M. T., & Nakamoto, J. (2008).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2), 289-299.
- Schunk, D. H. (1994).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Hillsdale, NJ : Erlbaum.
- Seidman, E., Allen, L., Aber, J. J., Mitchell, C., & Feinman, J. (1994).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s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lf-System and Perceived Social Context of Poor Urban Youth. *Child Development*, 65(2). 507-522.
- Sharpe, M. J., & Hepp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23-33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gnorella, M. L., & Cooper, J. E. (1993). Relationship Suggestions from Self-Help Books : Gender Stereotyping, Preferences, and Context Effects. *Sex Roles*, 65(5-6), 371-382.
-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24-635.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A. (1975). Rating of self and peers on sex-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 Trautwein, U., Ludtke, O., Koller, O., & Baumert, J. (2006). Self-esteem, academic

- self-concept, and achievement :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34-349.
- Waelde, L. C., Silvern, L., & Hodges, W. F. (1994). Stressful life events :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s of gender and gender role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suicidality among college students. *Sex Roles*, 30(1-2), 1-22.
- Watkins, D., & Astilla, E. (1980).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Filipino girl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5(1), 3-5.
- Watts, R. H., & Borders, L. D. (2005). Boys' Perceptions of the Male Role : Understanding Gender Role Conflict in Adolescent Males, *Journal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3(2). 267-280.
- Westbrook, B. W., Buck, R. W., Wynne, D. C., & Sanford, E. (1994). Career maturity in adolescence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ratings of ability by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125-161.
- Whitley, B. E., & Gridley, B. E. (1993). Sex roles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 A latent variables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4), 363-369.
- Whitley, B. E. (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765-778.

##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ity, Need for Power and Achievement and Self-esteem mediated by Academic Achievement for Young Adolescent Boys**

Moonsun Ha     Ji-Hyeon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instrumentality, need for power and achieve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for young adolescent boy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ity, need for power and achievement and self-esteem in 242 young adolescent boy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hypothesized model fitted to material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strumentality affected self-esteem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need for power and achievement influenced self-esteem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the positive aspects and negative aspects of male gender role when we need to understand and counsel self-esteem problem of young adolescent boy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the need for effective strategies to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 of boy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 : young adolescents boys, instrumentality, gender role conflict, need for power and achievement,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